

오늘 후 계약하면 연내 출고... “개소세 종료 전 서두르세요”

정부, 개소세 30% 인하 종료 움직임
르노코리아 10월 판매량 66.6% ↑
QM6·XM3·SM6 등 연말까지 출고

한국지엠 290% 증가 6811대 판매
트레일블레이저 등 5종 연내 인도

쌍용 보증기간 연장 등 혜택 제공
렉스턴 2종·코란도 등 연내 출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르노코리아자동차 QM6.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연말 개별소비세 (이하 개소세) 인하 종료로 앞두고 생산 물량 확대에 나서는 등 분위기 반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현대차·기아의 인기 차종의 경우 고객 인도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차를 구입할 때 30% 인하해주는 개소세를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은 빠른 차량 출고가 가능한 모델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르노코리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쉐보레(한국지엠) 등 이른바 ‘르쌍쉐’는 인기 차량을 앞세워 판매량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고일이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미뤄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과업 장기화에 따라 인도 시점이 무기한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로드탁송(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방식)을 거부할 경우 파업 이후 차량을 인도받아 사실상 올해 개소세 혜택을 못받을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올 연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량 출고가 빠른 르쌍쉐가 반사이익을 보는 분위기다.

르쌍쉐는 지난 10월 전년 동월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10월 전년 동기 대비 65.6% 증가한 1만9258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QM6는 지난달 2007대 판매되며 내수 판매를 이끌었으며 SM6는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475대를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한 2만 6811대를 판매했다. 이는 올해 들어 최대 증가폭이다. 내수 판매는 트레일블레이저와 스파크 등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3.3% 증가한 4070대를 기록했다. 쌍용차도 지난 10월 전년 동기 대비 177.0% 증가한 총 1만 3156대를 판매했다.

아직까지 연말까지 출고될 수 있는 모델이 많지 않은 가운데 르쌍쉐는 물량 확보를 통해 이달 차량을 계약하면 연말까지 출고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해 판

매 상승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선 르노코리아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M6와 XM3, SM6 등을 이달 계약하면 연말까지 출고가 가능하다. 다만 XM3 E-TECH 하이브리드 모델은 차량용 반도체와 사전 계약 5000대를 넘기면서 연말 출고는 힘든 상황이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 쉐보레는 트레일블레이저와 아퀴눅스, 트래버스, 타호, 콜로라도 등을 연말까지 고객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쉐보레는 11월 프로모션을 통해 업계 최저 할부 금리와 현금지원 등 파격구

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폴사이즈 SUV 타호는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하면 300만원 현금 할인과 이율 6.5%의 72개월 할부를 제공한다.

쌍용차는 올 뉴 렉스턴과 뉴 렉스턴 스포츠&칸, 코란도, 티볼리 등에 대해 이달 계약시 연말까지 고객에게 인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 모델 별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 운영과 보증기간 연장 혜택, 여행 상품권 지급 등을 제공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연말 개소세 인하 종료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며 “특히 연말 완성차 브랜드들이 할인과 할부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어 상승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쌍용차 뉴 렉스턴 스포츠칸.

삼성전자, 日 기업에 5G장비 공급 늘린다

NTT도코모와 공급확대 협력
주파수 대역별 기지국 공급받아

삼성전자가 품질에 예민한 일본에서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을 늘리게 됐다.

삼성전자는 일본 NTT도코모에 5G 이동통신장비 공급을 늘리는 추가 협력을 이어간다고 30일 밝혔다.

NTT도코모는 일본에서 약 8400만명 가입자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다. 지난해 3월에도 삼성전자와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주요 5G 주파수 대역별 기지국도 새로 공급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인구밀집도가 높고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는 일본 시장에서 추가로 5G 장비를 공급한 데 대해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28㎓ 초고주파대역을 지원하는 4.5kg의 초경량, 초소형 5G 라디오 기지국도 포함해 공급한다. 도심이나 사용자 밀집 지역에 설치하기 쉬워 효과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을 지원할 수 있다.

NTT 도코모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개발부 마스다 마사후미(Masuda Masafumi) 부장(General Manager)은 “NTT 도코모는 삼성전자와 5G 초창기부터 협력을 시작하여, 오픈랜(Open R

AN) 등 5G 비전을 함께 실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혁신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일본법인 네트워크 사업총괄 이와오 사토시(Iwao Satoshi) 상무는 “이동통신장비 시장은 사업자와 공급사간 오랜 시간에 걸친 신뢰관계의 구축과 차세대 기술에 대한 공동의 투자가 관건”이라며, “삼성의 앞선 기술력에 기반한 우수한 5G 제품 공급을 통해 NTT 도코모의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함께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대한항공, 中·동남아 노선에 ‘프리미엄 좌석’

소형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에
‘에어버스 A321네오’ 도입

국내 항공업계에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서 선보였던 프리미엄 좌석을 중국과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 탑승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소형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에 180도 완전 평면으로 펼쳐지는 좌석을 장착한 에어버스 A321네오(neo)를 도입하고 12월부터 운항에 나선다.

3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A321네오는 182석 규모의 협동체(단일 통로) 소형 항공기다. 동남아, 중국,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된다. 기내 와이파이, 첨단화한 개인형 기내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갖췄다. 대한항공 A321네오는 프레스티지 8석, 이코노미 174석 등 총 182석으로 꾸며졌다.

프레스티지석은 대한항공 협동체 소형



대한항공 A321neo 항공기 프레스티지 좌석. /대한항공

여객기 중 최초로 180도 완전 평면으로 펼쳐지는 8개의 침대형 좌석이 최대한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사선으로 배치된다.

해당 좌석에는 44cm 크기의 주면형 오디오비디오(AVOD) 모니터가 장착된다. 전기 아이콘이 표시된 좌석의 팔걸이 부분에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무선충전이 가능한 장치를 추가했다. 이코노미 좌석에는 기존보다 10cm 더 커진 33cm의 개인용 모니터로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GS그룹, 조직 안정에 방점... 대부분 유임

2023년도 임원 32명 인사 발표

GS그룹이 2023년 인사를 발표했다. 경영 안정성과 위기 대응력 제고 위해 주요 계열사 대표 대부분 유임한다. GS그룹은 ‘변화’ 보다는 ‘안정’을 택하며 변동성이 큰 시대에 ‘중단 없는 리더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30일 GS그룹은 ▲부사장 승진 2명 ▲전무 승진 6명 ▲상무 신규 선임 21명 ▲전배 3명 등 총 32명에 대한 2023년도 임원 인사를 내정했다. 이번 임원 인사는 각 계열사별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발령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대부분 유임했다는 점이다. GS그룹 측은 “이는 올 한 해 대

부분의 계열사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과를 창출하였을 뿐 아니라, 내년 이후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기하는 동시에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언급했다.

즉, 유가와 환율, 금리, 국제경기 등 GS가 영위하는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동성이 크고 이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단 없는 리더십이라는 가치에 금번 인사의 중심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GS 측은 “허태수 회장 부임이후 최근 3년간 GS그룹 전반의 체질 개선과 혁신이 뿌리를 내리고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이태형 GS CFO 겸 PM팀장 부사장



김상수 GS칼텍스 M&M본부장 부사장

현 경영진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 지속 성장과 혁신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려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S의 재무팀장(CFO) 겸 PM팀장인 이태형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한다. 이태형 부사장은 GS그룹 내 사업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적극 지원해 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성수동 ‘광야@서울’에 투명 OLED 깔았다

LG디스플레이, T-플로어 솔루션 적용

LG디스플레이 투명 OLED가 ‘광야’ 바닥을 장식한다.

LG디스플레이는 서울 성수동 ‘광야@서울’에 투명 OLED 플로어(T-플로어) 솔루션을 처음 적용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야@서울은 SM브랜드마케팅이 만든 신규 플래그십 스토어다. 활용하기 어려웠던 바닥에도 투명 OLED를 적용

해 프로모션 효과와 공간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LG디스플레이는 라온지 바닥에 55인치 투명 OLED 33대를 설치했다. 음반 및 아이돌 굿즈 상품을 진열하고 다양한 그래픽 효과와 상품 정보를 홀로그램처럼 구현해 쇼핑 경험을 극대화했다.

T-플로어는 원하는 크기로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발열이 적고 특수 강화 유리로 큰 하중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다.

/김재용 기자